대지진 피해 복구, 사찰은 '소외'

동일본대지진 발생 8년, 종교시설 복구 난항

박영빈 객원기자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지 8년, 수많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나왔다. 그러나 종교계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폐허에서 다시 금 도시들이 부흥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찰들은 재건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3월 13일 일본의 인터넷 매체 '프레지던트 온라인'은 사찰들이 재건되지 못하는 이유에 관해 특별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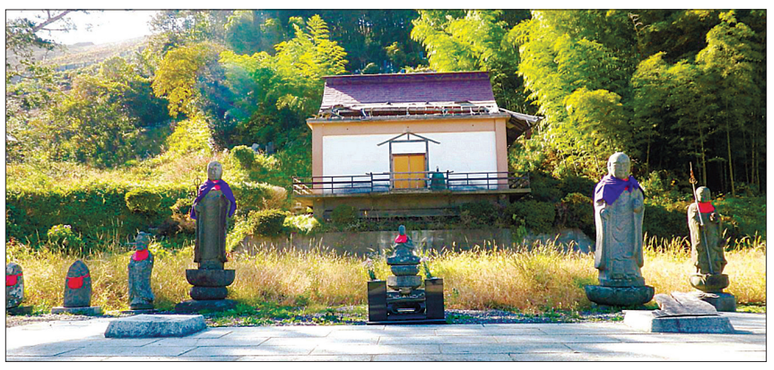
동일본대지진 당시 유실 · 전체붕괴 · 일부붕괴 · 일반손해 등 피해를 입은 사원의 수는 3,199개소. 이중 전체붕괴로 폐사된 사찰만 45개소에 달한다. 그러나 이 숫자는 상주인원이 거주하거나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대형종단의 사찰들만 보고된 것이다. 무인사찰이나 인법당 등의 손해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동일본지역(아오모리 · 이와테 · 미야기 · 후쿠시마현)에 소재한 공식 등록사찰의 수가 3,587개소인 것을 감안할 때 피해사찰 수는 89%에 달한다.

종교전문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우카이 슈토쿠 스님은 "전통사찰은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다. 건축물의 규모가 큰 만큼 대진공사나 정기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사찰이 개별적으로 손을 대기 어렵다"고 밝히며 사찰의 피해가 막대한 이유를 분석했다. 슈토쿠 스님은 "단지 기와 한 장이라도, 목조건축인 사찰에 있어서는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기와지붕이 지상에서 높이 10m가 넘는 것은 기본이며, 목탑의 경우엔 단지 점검비용만 해도 최소 수십만 엔에서 수백만 엔이 든다"고 현장의 고충을 토로했다.

재난보험에 사찰이 가입하지 않은 것도 재건이 늦어지는 이유로 꼽혔다. 화재에 취약한 목조법당이나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일수록 보험금이 고액으로 산정되기에 많은 사찰들이 재난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꺼리는 실정이다. 대형종단 중에서 보험에 가입한 사찰도 있지만 단지 건축물에 대한 보험금만이 산정되었을 뿐 불구와 불상 등에 대해서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재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진에 폐사된 사찰만 45곳
피해 입은 사찰까지 3200곳
사회자본 인정받지 못하면서
국가지원금 사찰에 안 전해져

피해가 심각했던 사찰에 있어서는 종단으로부터 지원금이 일부 나왔으나 사찰을 재건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진으로 사찰이 모두 붕괴한 한 사찰은 "종단으로부터 전체 붕괴된 사찰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300만 엔의 지원금이 나왔다. 그러나 재건에는 최소 억 단위의 금액이 필요해 현재의 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동일본대지진으로 피해를 입고 아직까지 재건되지 못한 사찰. 사진출처=프레지던트 온라인

한편 사찰이 사회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아 국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점도 재건이 늦어지는 이유라는 지적도 있다. 일본은 2차 대전 후 새롭게 제정된 헌법상 정교분리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찰에서 관리하는 공동묘지나 납골시설 등 장례시설은 사회자본으로 인정되지만, 사찰의 소유라는 점에서 개인재산에도 포함된다. 순수하게 장례시설이 사회자본으로 인정되더라도, 시설에 대한 지원만 가능할 뿐 사찰의 재건이나 이전과 같은 종교시설에 있어서는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에서 부흥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진피해지역에서 사찰 등 종교시설들의 재건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불교명절이나 사찰의 전설이 지역 풍습과 전통행사 등 연계가 많은 일본불교 특성상 사찰을 사회자본으로 인정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법회나 종교적인 풍습을 통해 지역공동체가 강화되며, 부지가 넓은 사찰의 경우 자연재해 시에 대피장소로 사용되는 점이 대표적인 이유다. 실제 동일본대지진 당시 무너진 사찰이나 신사부지에 지역주민들이 대피, 무너진 건물 자재를 활용해 임시거주지를 짓거나 땔감으로 사용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한편 원론적인 이유만으로 종교시설의 재건에 국가지원금이 투입되지 않는 것은 역으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동일본지진으로부터 8년, 아직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대나무횃불의 장엄 '슈니에' 회향

일본 토다이지, 2주 걸쳐 1200년 역사적 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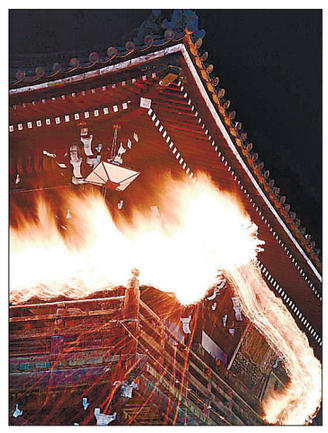
일본 천년고찰이자 노사나대불로 유명한 토다이지(東大寺)에서 매년 봄에 열리는 특별법회 '슈니에(修二会)'가 2주간의 법회를 회향했다. 지난 3월 1일 1,200년을 이어온 법회의 모습을 '나라신문' '요미우리신문' '마이니치신문' 등 주요 언론사가 특집 보도했다.

매년 봄에 일본 각지에서 열리는 슈니에 법회는 8세기경 일본왕실의 발원으로 시작됐다. 음력 1월을 기점으로 진행되는 법회는 악업을 참회하고, 불보살을 공양한 공덕을 나라를 위해 회향해 한 해의 평안과 풍작을 기원한다.

토다이지의 슈니에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슈니에 법회로 기록상 752년에 최초로 봉행됐다. 이후 단 한 번도 끊이지 않고 매년 이어졌다. 심지어 물자와 인원이 부족했던 2차 세계대전 시기에도 대중스님들의 노력으로 봉행돼 '불퇴의 행법'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토다이지는 매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11면관세음보살을 모신 니가츠도(二月堂)법당에서 슈니에를 봉행한다. 사중에서 특별히 엄선된 11명의 스님이 매일 6차례 관세음보살상을 요잡하며 참법(懺法)을 독송한다. 특히 토다이지의 슈니에에서 유명한 행사는 관세음보살에 올릴 공양수를 긷는 행사와 한 해의 액을 막기 위해 커다란 횃불을 들고 달리는 행사로 모두 3월 12일에 행해졌다.

12일 새벽, 5명의 스님들이 니가츠도 아래의 우물에서 공양수를 길었다. 이때의 공양수는 슈니에를 마친 후에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담긴 약수로 신자들에게 나눠진다.


12일 저녁 니가츠도 난간을 질주하는 거대한 대나무 횃불(오타이마츠). 사진출처=마이니치신문

오후 7시 30분경 길이 8m, 무게 70kg 가량의 대나무 횃불 '오타이마츠(お松明)' 11개를 11명의 스님들이 어깨에 메고서 니가츠도의 난간을 질주했다. 이때 대나무 횃불에서 떨어지는 불똥이나 재를 맞으면 한 해 동안 건강하고 행운이 깃든다는 속설이 퍼지면서, 횃불을 보기 위해 약 3만 명의 신자와 관광객들이 방문한다.

오타이마츠를 보기 위해 일부러 토다이지를 찾았다는 한 참배자는 "사진이나 뉴스에서 본 것보다 더 역동적이고 화려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출가자 정치참여, 새로운 일 아냐"

캄보디아 불교NGO 국장 크메르 타임즈 인터뷰서

정교분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현대사회에서 불교는 사회와 국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불교의 현대적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캄보디아의 유력매체 '크메르 타임즈'는 특별한 인터뷰를 보도했다. 크메르 타임즈는 3월 15일 캄보디아 최대 불교NGO, '발전을 위한 불교(Buddhism for development)'의 국장 헹 모네첸다(Heng Monychenda)와의 대담을 전했다.

17년간 승가에서 비구로 활동했던 헹 모네첸다 국장은 '과학이 아닌 종교인 불교가 기업과 경제에 어떤 기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철학과 기술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기술은 사람들이 특정한 사물을 만들 수 있게 하지만, 기술은 철학의 영향을 받는다"고 전제한 후 "불교의 관점에서 기술은 사람들이 나중에 발견하는 것, 이는 원칙이 우선이라는 뜻이다. 불교에서의 원칙은 바로 행복"이라고 설명했다.


불교의 현대적 역할에 대한 논의가 캄보디아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재가불자로부터 탁발을 받고 있는 캄보디아 스님들. 사진출처=크메르 타임즈

모네첸다 국장은 "모든 사람들의 노력과 진실함에서 부가 생겨난다. 불교의 가르침은 부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엇이, 어떻게 부를 축적하는지가 매우 가장 기본적인 바람이 곧 불교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원칙을 이해한 기반에서 경제 역시 불교적으로 성장 가능하다는 것이 모네첸다 국장의 지론이다.

모네첸다 국장은 "모든 사람들의 노력과 진실함에서 부가 생겨난다. 불교의 가르침은 부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엇이, 어떻게 부를 축적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부를 위해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삼독(三毒)인 탐욕과 무지에 의한 것이다. 아무리 부유해도 검소하고 겸손하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다"고 거듭 강조했다.

출가자의 정치 참여에 대한 질문에 그는 "율장에 따르면 승려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는 물론, 군인을 축복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고 답변하면서도 "출가자의 정치참여는 새로운 일이 아니며, 스리랑카는 출가자가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역할과 민중의 행복을 위해서는 "불교와 사회의 밀접한 연결을 바탕으로 한 정치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네첸다 국장은 "불교적 리더십은 패권주의가 아닌 민주주의적 모델"이라며 불교철학이야말로 현대사회에 가장 큰 역할을 지닌다고 말했다.

조우인 객원기자

미국인들은 왜 불교에 눈을 돌릴까?

종교적 신앙보다 실천적인 명상에 집중해

많은 미국인들이 불교에 대해 종교적인 신앙보다 명상을 통한 정신건강을 주 관심사로 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월 14일 미국의 인터넷매체 '디 애틀랜틱'은 명상을 통해 각광받고 있는 미국불교의 모습을 전했다.

디 애틀랜틱은 "현재 미국 성인 10명 중 4명은 적어도 매주 명상을 한다"고 전하며 온라인상에 불교명상과 관련된 교육 콘텐츠가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대해 디 애틀랜틱의 필진 올가 카잔(Olga Khazan)은 "현재 많은 미국인들에게 있어 불교에 대한 주된 관심사는 정신 건강"이라며 "비불교적인 명상 콘텐츠가 최근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프랭클린&마샬 대학교의 데이비드 맥마한 교수는 "동양에서 전해온 불교의 독창적인 문화가 서양적인 맥락에서 재해석되고 변형된 결과"라며 "마치 뷔페에서 음식을 고르듯, 불교철학의 특정 요소만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 서양의 불교도"라고 전했다.

현재 미국에서 불교명상은 종교적인 신앙을 떠나 하나의 정신건강 서비스로 활용되고 있다. 인터뷰에 응한 직장인 다니엘 산체스는 사성제중 고성제를 언급하며 "불교는 고통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해줬고, 이를 피하지 않고 다룰 수 있는 힘을 알려줬다"며 명상을 통해 업무에서 오는 감정적인 고통을 완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디 애틀랜틱은 "불교의 명상과 정신과 요법이 함께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자주 보고된다"고 전하며 "서양에서의 불교는 교리적인 가르침보다 삶의 도덕적 기반과 조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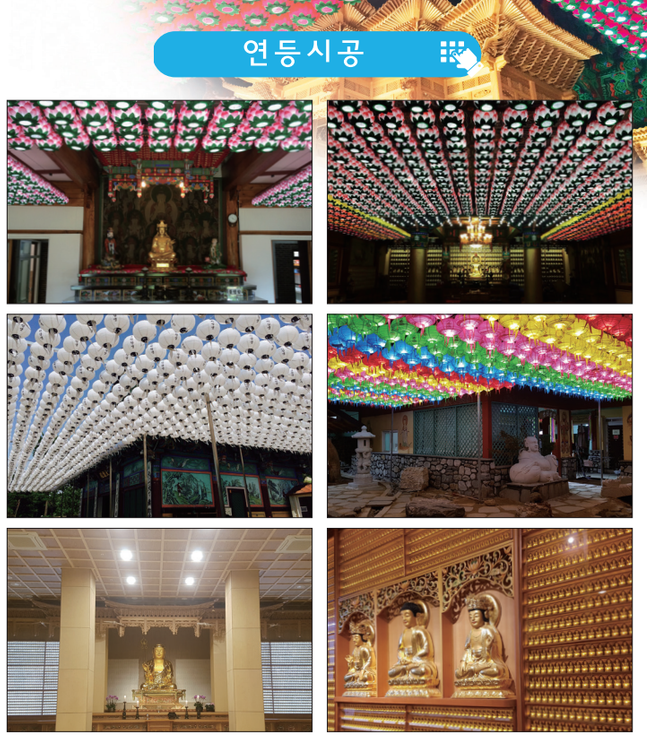
조우인 객원기자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